美術資料의 利用에 관한 硏究
- 利用者의 主題背景과 關聯하여 -

A Study on the Use of Art Information
- In Relation to the Users' Subject Background on the Fine Arts -

이 현 정 최 성 진
성균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Lee, Hvun Jung Choi, Sung Jin
Department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
Sung Kyun Kwan University

미술분야의 경우 타주제분야와는 달리 정보이용에 있어서 시각적인 중요성(Visual Significance)이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미술연구 및 작품활동·감상시 원작품이나, 원작품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작품을 가장 본질에 가깝게 제공하는 대용매체인 시각자료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자료에 비해 훨씬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과연 이용자들이 미술도서관을 통하여 시각자료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더 이용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서 미술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정보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는 현재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으며, 그 정보속에는 물론 미술에 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 정보는 사회적 수요가 있는 곳에서 생산되어 가공이라는 가치창조작업을 거쳐 이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수단이 강구될 때 유통이 원활하게 된다. 또 아무리 유용한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전달과정이 원활하지 못하면 제기능을 살리지 못한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술분야는 정보유통이란 차원에서 볼 때 제대로 갖추어진 미술도서관 하나 없는 실정이며, 서구에 비해 우리의 미술도서관은 그 역사가 짧고 이에따라 조직이나 인력구성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큰 기대를 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도서관 분야에서도 미술도서관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가 소홀했다는 점에서 미술도서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구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필요성은 크게 2가지 관점에서 비롯된다. 첫째, 문헌정보학의 궁극적 목적에서 비롯된 필요성이다. 문헌정보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보와 이용자를 정확히 연결시켜 주는데 있으며, 도서관이나 정보센터의 사서들은 정보봉사를 통하여 정보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주요 사명이다. 정보봉사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봉사할 이용자집단과 충족시켜야할 정보요구를 정의하는 일이다. 이용자집단의 범위를 확인하고, 그 집단 구성원들의 정보요구를 정확히 파악한 후에 수집할 자료의 종류 및 범위, 제공할 봉사의 종류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둘째, 자료의 이용측면에서 비롯된 필요성이다.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의 존재이유는 그것이 이용되는데 있다. 따라서 도서관은 수시로 현재와 미래에 이용자들이 요구할 사항이 무엇인지를 조사하고 그런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효과적 방안을 검토하는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즉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통하여 이용하는 자료를 대상으로 어떤 자료가 얼마나, 누구에 의하여, 어떻게, 왜, 언제 이용되는지를 조사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자료를 이용하는지, 이용한다면 어떤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는지, 왜 그 자료를 이용하는지를 밝혀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미술분야의 경우 이에 대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미술분야의 경우 타주제분야와는 달리 정보이용에 있어서 시각적인 중요성(Visual Significance)이 특히 강조된다. 따라서 이용자들이 미술연구 및 작품활동·감상시 원작품이나, 원작품이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을 경우 원작품을 가장 본질에 가깝게 제공하는 대용매체인 시각자료에 대한 요구도가 다른 자료에 비해 월씬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정을 근거로 과연 이용자들이 미술도서관을 통하여 시각자료만을 집중적으로 이용하는지, 아니면 다른 자료를 더 이용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를 밝혀서 미술도서관 이용자에게 보다 더 효율적인 정보봉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1.2 가설의 설정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미술도서관 이용자의 주제배경수준과 미술자료의 이용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것이다. 즉, 미술분야에 대한 주제배경이 강한 집단은 약한 집단에 비하여 시각자료를 더 선호할 것이며, 이와는 반대로 미술분야에 대한 주제배경이 약한 집단은 강한 집단에 비하여 일반자료를 더 선호할 것이다.

본 연구의 기본적 가설을 구체화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미술분야의 연구자들은 다른 주제분야의 연구자들이 연구주제에 대한 정보가 기록된 문헌(Work of Literature)을 주정보원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문헌이 아닌 미술작품자체(Work of Art Itself)를 주정보원으로 한다. 따라서 미술분야에 대한 주제배경이 강한 집단은 일반자료보다는 미술작품에 나타난 이미지(Image) 및 세부묘사(Detail) 등을 확대·세분하거나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동떨어진 두 이미지(Image)간의 비교조작을 가능케하는 시각자료를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러나 미술분야에 대한 주제배경이 약한 집단은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해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시각자료보다는 미술작품에 대한 감상뿐만 아니라 미술작품 및 화가에 대한 정보까지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일반자료를 더 선호할 것이다.

제 2 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1 연구의 범위

미술도서관의 유형은 ① 전문적인 미술관에 부속된 미술도서관(Art Libraries), ② 대학 및 전문대학 도서관의 미술자료실(Art Division of a College / University Library), ③ 전문적인 미술교육기관에 설치된 미술도서관(Art School Libraries), ④ 박물관내에 설치된 미술자료실(Art Museum Libraries), ⑤ 공공도서관내에 설치된 미술자료실(Art Library Departments in Public Libraries) 등으로 나눌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현재 미술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여러 도서관중 전문적인 미술관에 부속된 미술도서관만을 조사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도서관의 관종에 관계없이 비교적 다양한 학력과 지식수준을 가진 이용자들이 미술정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고, 또한 이들의 요구에 적합한 미술정보 및 봉사를 제공하고 있는 7개 미술도서관을 조사대상기관으로 선정한다.[2]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1)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데이타는 질문지에 대한 응답형식으로 수집한다.

(2) 질문지의 내용은 ① 미술도서관 이용자의 주제배경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사항 ② 미술도서관 이용자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③ 이용자집단별 미술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 ④ 이용자집단별 미술자료 이용정도에 관한 사항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된다.

(3) 회수된 응답지에 나타난 데이타는 「SAS」(Statistical Analysis System) 통계팩키지를 이용, 유의수준을 $P<.05$로 하여 χ^2-검증 (χ^2-test) 및 이용자집단간의 평균치 차이를 분석하는 T-검증(T-test)을 하여 설정된 가설을 검증한다.

제 3 장 이용자의 주제배경수준에 따른 미술자료의 이용

3.1 미술도서관 이용자의 주제배경수준

본 연구에서는 미술도서관 이용자의 주제배경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① 미술전공여부 ② 미술관련 직업종사여부 ③ 미술분야의 기초과목 이수여부 등의 질문내용을 토대로 하여 이용자집단을 주제배경이 강한 집단(A 집단) 과 주제배경이 약한 집단(B 집단)으로 구분한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7개 미술도서관의 이용자들을 집단화한 결과는 주제배경이 강한 집단(이하 'A 집단'이라 함)이 117명(53.2%), 주제배경이 약한 집단(이하 'B 집단'이라 함)이 103명(46.8%)이다.

3.2 이용자집단별 미술자료의 이용

이용자들이 미술도서관을 주로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며, 소장된 자료가 그들의 이용목

1) Wolfgang Freitag. "Art Libraries and Collections", Encyclopedi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1968 - 82) : 571-621.

2) 국립중앙박물관 미술자료실,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 및 도서실, 서울시립미술관 자료실, 예술의 전당 예술정보자료관,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특수자료실, 호암미술관 자료실, 홍익대학교 도서관 미술자료실.

적 및 주 관심분야와 어느정도 일치되고 있으며, 여러가지 미술자료중 주로 어떤 유형, 종류의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지를 각 집단별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미술자료의 유형을 일반자료, 시각자료 등과 같이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각 자료에 대한 이용자집단별 이용정도를 분석한다. 또한 미술자료를 10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각 자료에 대한 이용자집단별 이용정도를 분석한다. 즉 이용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입수를 위하여 일반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 반대로 시각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밝히고, 또한 각 집단별로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에 차이가 있다면 특별히 그 자료만을 다른 자료에 비해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용자들의 미술도서관 이용목적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A 집단의 경우 주로 미술분야에 대한 연구 및 작품활동시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미술연구의 대부분이 다른 주제분야의 연구와는 달리 입증된 선행연구 결과를 수록해 놓은 문헌보다는 미술작품에 대한 도상학적 접근,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함을 감안할 때, 일반자료보다 시각자료를 주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B 집단의 경우 미술작품 감상 및 화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단순히 미술작품에 대한 시각적인 재현만을 제공하는 시각자료보다는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 및 화가에 대한 정보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일반자료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의 주 관심분야도 주제배경수준에 따른 집단별 이용자료의 차이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즉 A 집단의 경우 주 관심분야가 미술작품 및 미술재료·기법, 양식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사진, 슬라이드 등과 같이 미술작품에 나타난 이미지(Image) 및 세부묘사(Detail) 등을 확대, 세분하거나 시간적 혹은 공간적으로 동떨어진 두 이미지(Image)간의 비교조작을 가능케 하는 자료 즉, 미술작품에 대한 도상해석학적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시각자료를 주로 이용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또한 B 집단의 경우 주 관심분야가 미술철학·이론, 미술가·유파, 미술작품 등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미술작품에 대한 해설뿐만 아니라 미술이론, 화가에 대한 지식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일반자료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할 수 있다.

3.2.1 미술자료의 유형별 이용정도

미술도서관 이용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미술자료에 대한 이용정도를 분석하여 응답자 전체의 미술자료에 대한 평균 이용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한다.

즉 이용자의 주제배경수준과 그들이 이용하는 미술자료의 유형중 일반자료의 이용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T-test결과 P=0.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B 집단이 A 집단보다 일반자료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표1〉 주제배경수준에 따른 미술자료의 유형별 이용정도 - 일반자료

집단 \ 구분	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이용정도
A 집단	117	2.00000000	4.00000000	2.63247863
B 집단	103	3.00000000	5.00000000	4.97087379

t값	자유도(DF)	유의수준(Significance)
11.7707	194.9	0.0001

그렇다면 어떤 이유로 인하여 여러 유형의 자료중 일반자료를 더 선호하는지를 밝혀 볼 필요가 있다. 전체 응답자중 대부분이 일반자료의 본문에 쓰여진 내용(Text)과 도판(Plate)을 통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감상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자료보다는 일반자료를 더 선호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B 집단의 미술도서관 이용목적 및 그들의 주 관심분야가 대부분 미술작품에 대한 해설정보 및 화가의 전기정보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

이용자의 주제배경과 그들이 이용하는 미술자료의 유형중 시각자료의 이용정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T-test결과 P=0.0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 A 집단이 B 집단보다 시각자료를 더 선호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였다.

〈표2〉 주제배경수준에 따른 미술자료의 유형별 이용정도 - 시각자료

집단 \ 구분	수(명)	최소값	최대값	평균이용정도
A 집단	117	3.00000000	5.00000000	4.72649573
B 집단	103	1.00000000	3.00000000	1.64077670

t값	자유도(DF)	유의수준(Significance)
19.0732	208.9	0.0001

여러 유형의 자료중 시각자료를 더 선호하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중 대부분이 일반자료에서는 불가능한 미술작품의 확대, 축소, 비교 등의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자료에 비해 시각자료를 더 많이 이용한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A 집단의 미술도서관 이용목적 및 그들의 주 관심분야가 대부분 미술작품의 색채, 기법, 양식 등의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다.

3.2.2 미술자료의 종류별 이용정도

이용자들이 미술연구, 작품활동·감상을 위하여 이용하는 미술자료는 그 종류와 형태가 다양할 것이다. 이용자들이 미술도서관을 통해서 많이 이용할 것이라 생각되는 미술자료 -일반자료 및 시각자료- 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용자가 생각하는 종류별 이용정도를 표시하게 한 후 평균값을 구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응답지에 표시된 각 자료의 종류별 이용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알아본다. 분석결과 그러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자료의 종류별 이용에 대한 평균값은 A 집단의 경우 미술화집·도록, 미술잡지, 미술이론·비평서, 미술학위논문, 화가의 자서전의 순으로 나타났다. B 집단의 경우 화가의 자서전, 미술화집·도록, 미술이론·비평서, 미술잡지, 미술학위논문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3〉 일반자료의 종류별 이용정도

일반자료 \ 집단	A 집단		B 집단	
	순위	평균이용정도	순위	평균이용정도
미술화집·도록	1	4.2051282	2	4.0776699
미술잡지	2	3.6068376	4	3.3883495
미술이론·비평서	3	3.4700855	3	3.7864078
미술학위논문	4	1.6068376	5	1.0000000
화가의 자서전	5	1.2307692	1	4.6893204

시각자료의 종류별 이용에 대한 평균값은 A 집단의 경우 슬라이드, 사진, Picture File 자료, 포스터, 복제그림의 순으로 나타났다. B 집단의 경우 시각자료의 종류별 이용에 대한 평균값이 사진, 포스터, 슬라이드, 복제그림, Picture File자료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4〉 시각자료의 종류별 이용정도

시각자료 \ 집단	A 집단		B 집단	
	순위	평균이용정도	순위	평균이용정도
슬라이드	1	4.1623932	3	1.3300971
사진	2	3.8700855	1	2.3495146
Picture File자료	3	3.6324786	5	1.0582524
포스터	4	2.9316239	2	2.0194175
복제그림	5	2.3675214	4	1.1941748

제 4 장 결 론

본 연구는 미술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여러 유형의 미술자료중 주제배경이 강한 집단은 시각자료를, 주제배경이 약한 집단은 일반자료를 더 많이 이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미술도서관의 이용자들을 미술분야에 대한 주제배경이 강한 집단(A 집단)과 약한 집단(B 집단)으로 나누어 그들이 주로 이용하는 자료가 어떤 것이며, 각 자료들의 이용정도는 어떠한지를 조사하여 밝혔다. 즉 이용자들이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입수를 위하여 일반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 반대로 시각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는지, 그렇다면 그 정도는 어떠한지를 밝히고, 또한 각 집단별로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에 차이가 있다면 특별히 그 자료만을 다른 자료에 비해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발견과 결론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들의 미술도서관 이용목적은 A 집단의 경우 미술연구 및 작품활동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우가 가장 많고, 작품활동과정에서 중요한 과제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경우도 비교적 많다. 그러나 미술작품 감상 및 화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술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B 집단의 경우 미술작품 감상 및 화가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미술도서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연구 및 과제해결에 필요한 정보, 아이디어 획득을 위한 경우는 거의 없다.

(2) 이용자들의 주 관심분야는 A 집단의 경우 미술철학·이론, 미술가·유파보다는 미술작품 및 미술재료·기법, 미술양식에 주된 관심이 있으며, B 집단의 경우 미술재료·기법, 미술양식보다는 미술철학·이론, 미술가·유파, 미술작품에 주된 관심이 있다. 이러한 이용자들의 미술도서관 이용목적 및 주 관심분야는 주제배경수준에 따른 집단별 이용자료의 차이에 영향을 미친다.

(3) 이용자들의 주제배경수준과 미술자료이용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주제배경이 강한 집단(A 집단)은 시각자료를, 주제배경이 약한 집단(B 집단)은 일반자료를 많이 이용한다. 또한 이용자들의 주제배경수준과 미술자료의 종류별 이용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 일반자료의 경우 A 집단은 미술화집·도록, 미술잡지, 미술이론·비평서, 미술학위논문, 화가의 자서전의 순으로 이용하며, B 집단은 화가의 자서전, 미술화집·도록, 미술이론·비평서, 미술잡지, , 미술학위논문의 순으로 이용한다. 시각자료의 경우 A 집단은 슬라이드, Picture File자료, 포스터, 복제그림의 순으로 이용하며, B 집단은 사진, 포스터, 슬라이드, 복제그림, Picture File자료의 순으로 이용한다.

(4) 각 집단별로 자료이용에 차이를 나타내는 이유, 즉 왜 여러 유형의 자료중 일반자료 혹은 시각자료를 더 선호하는 지에 대한 이유를 살펴보면 시각자료보다 일반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일반자료의 본문에 쓰여진 내용(Text)과 도판(Plate)을 통하여 미술작품에 대한 설명뿐만 아니라 감상의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시각자료보다는 일반자료를 더 많이 이용한다. 일반자료보다 시각자료를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일반자료에서는 불가능한 미술작품의 확대, 축소, 비교 등의 기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자료에 비해 시각자료를 더 많이 이용한다.